

마브 윌슨 박사, 선지자, 세션 27, 이사야, 일부 구절, 2부

© 2024 마브 윌슨과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27, 이사야 선택 구절, 2부입니다.

좋아요, 기도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주 내내 우리와 함께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밤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를 위해 살도록 오늘을 주신 사실을 매일 축하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꺾다가 켜는 스위치가 아니라 항상 당신을 염두에 두고 매일 당신과 함께 걷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걷기입니다. 당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곳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 삶에서 당신과 당신의 능력을 끌어내십시오. 당신이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삶의 모든 영역, 우리에게 당신을 포함시키라고 요청하는 모든 영역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 세대에 겪은 어려움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희망과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요, 저는 이사야의 사명에 대해 세 가지의 광범위한 개요를 제안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처음 네 구절에서 그는 주님을 봅니다.

5-8절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9-13절에서 그는 위임을 받고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나는 자신과 자신의 조건, 자격 부족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지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위임을 받고 정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금 완성한 두 번째 부분인 이전 강의의 5-8절을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결케 됨을 경험합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봉헌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흥미로운 히브리어 '하인(hine)'으로 소개되는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히니는 주목을 끄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위대한 아케다장에서 이 내용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기 내가 있다, 아니면 나다, 아니면 보라, 나는 듣고 있다.

그것은 '나는 준비됐다, 나는 듣고 있다, 나는 나에게 다음 지시를 내려라'라는 생각을 전달하는 매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들이 자신의 인간성과 죄성을 다룰 때,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더욱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이에 대한 예입니다. 9부터 13까지로 시작하는 세 번째 주요 부분을 보면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가서 이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의 사역의 목적이 드러날 것인데, 그것은 꽤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기본적으로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시에는 그리 큰 규모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실패자가 되기 위해 세상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여기서 언어를 주목하세요.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이 백성은 이 예언의 여러 곳, 즉 내 백성인 아미라는 단어가 사용된 에스겔과 예레미야와도 대조됩니다. 그것은 사랑의 애정의 용어입니다.

이것은 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세요. 그것은 일종의 큰 막대기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는 1장을 통해 그들이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포에 대한 기쁨과 경멸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성경의 흥미로운 교차점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요소가 유사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가 유사한 교차점, ABBA 구조를 기억하세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것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집니다.

전통은 산 자의 죽은 신앙이 아니라 죽은 자의 산 신앙입니다. 아바. 이제 여기에 성경에서 더 흔히 볼 수 있는 4가지 요소가 아닌 실제로 6가지 요소가 있는 교차점이 있습니다.

나는 최근의 이전 강의에서 시적 스타일에 관해 조금 이야기할 때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구절인 9절과 10절에서 그는 “항상 듣기는 하여도 깨닫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볼 수는 있지만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소서.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눈을 감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리라 따라서 여기의 언어는 선지자가 개입하게 될 역설적인 종류의 일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메시지를 제시하고 주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말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이것이 이사야의 말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진리를 거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요컨대 그들의 고집은 더욱 확증될 것이다. 이사야가 설교한 목적은 이것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더욱 어두워지는 결과를 낳는다.

이사야의 설교는 마음의 완악함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것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이사야의 임무는 매우 비슷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사람들, 즉 그들에게는 이 진리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찾지도, 응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여기서 단지 진리, 즉 그들이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지고 그들의 눈은 흐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반응을 보신다. 그리고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사악함, 무반응, 완고함, 맹목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악한 의도로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처럼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인간의 마음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는 그의 사역이 대중적인 사역이 아닐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듣고 용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눈멀음과 완고함과 완악함과 귀가 둔함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계속될 예정인가요? 그리고 그 대답은 백성이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까지 이어지는 구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에 주목하세요. 도시들이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을 때까지. 집은 버려졌고 들판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을 멀리 보내시고 그 땅이 온전히 버림을 받을 때까지라. 그리고 여기서의 언어는 아마도 어느 정도 과장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586이라면 그것은 느부갓네살 치하의 예루살렘의 멸망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 땅에 남아 포도원을 돌보게 될 사람들, 즉 그 땅의 사람들인 암 하레츠(Yam Haaretz)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어에서는 모든 사람이 멀리 이동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 그가 자격을 갖추면 10분의 1이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남은 주제를 소개한다. 살아남은 남은 자가 있었을 것이다.

아무리 자주 백성이 멸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사야가 살아 있는 701년에 산헤립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을 두드리며 유다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46개 도시를 청소하거나 다른 공격을 가할 것이며, 특히 나의 경우에는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남은 자들, 곧 유다에 남아 있는 살아남은 남은 자들을 보존하실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하시는 방식은 상수리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찍힐 때 그루터기를 남기므로 거룩한 씨가 땅에서 그루터기가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즉, 충실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루터기에는 생명이 있고, 가지를 잘라낸 뒤에도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생명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의 일부인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싹, 즉 예레미야가 말하는 의로운 가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원예적 비유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메시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마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남은 자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부흥의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은 부분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아들 곧 남은 자 스알야습의 이름이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이 주제는 성경의 주요 주제입니다.

이제 저는 예언의 첫 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통렬하게 기소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유다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장에 나오는 언어는 어떤 면에서는 예언적 언어가 때로는 극단적이고 과장되어 설명되기 때문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헤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애뜻함을 알게 된다면, 그분이 얼마나 강렬하고 개인적으로 돌보시며, 그분의 백성의 상태에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역적인 이 나라는 이 첫 장 전체에 걸쳐 죄 많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분석됩니다. 이 책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비전은 우리가 아모스의 다섯 가지 환상이나 에스겔의 그림인 마른 뼈의 환상에서 본 것처럼 항상 예언적 환상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계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잠언 중 하나가 잠언 29장 18절입니다. 하죤(hatzon)은 환상이라는 말인데,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합니다.

이는 예언적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토라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난리를 피우는 줄이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를 억제하는 힘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무시하면 그렇게 되고, 그 결과 무정부 상태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중요하며, 저는 그것이 우리가 아모스에서 본 방식으로 묘사된 정확한 그림적 종류의 환상보다는 여기에서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책이 열리면서 또 어떤 선지자가 생각나나요? 오 하늘이여, 오 땅이여, 여기에서 들으소서.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기소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당신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정확히는 미가처럼요.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미가서 6장에서 본 것처럼, 계시록, 언약 소송, 논쟁,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논쟁 등의 언어는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기소에서, 넓은 의미에서 미가서 6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부두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특별한 사건의 재판관, 즉 원고이시며, 피고인 유다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가에게서 야훼의 기소에 대한 재판관과 증인으로 서 있는 언덕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늘과 땅, 말하자면 모든 피조물이 말씀하실 전능자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평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불평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죄를 범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첫 번째 비난은 2절에 있는데, 여기서 그분은 반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반항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 사용하는 단어는 파샤(pasha)인데, 그 단어는 의도적으로 권위에 어긋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적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폐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자신의 자아, 자신의 자아가 이제 권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때때로 반역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 그분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웠으나 그들이 반역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Micah에서도 같은 주제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그분의 아들로써 모든 형태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그분의 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을 아들들의 나라로 삼으셨으나 그들은 그분의 권위에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올 때 소개되는 이 거꾸로 된 왕국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겪는 싸움은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들의 싸움이지만 또한 의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의 왕좌에 누가 앉을 것인가? 예루살렘의 왕만이 아니라, 그들은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가? 음, 토라는 일상생활에 대한 의지를 정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스라엘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소는 자기 주인을 안다. 이럴 수가.

당나귀는 누가 구유에 오는지 압니다. 아니면 아기 침대나 마구간에 먹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동물들도 십계명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동물에 대해 그분이 언급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안식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와 매우 가까웠습니다. 소와 당나귀, 존 디어, 성경 시대의 파말. 이들은 매우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점을 청소하고 돌보고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애정이라는 용어인 내 백성 아미가 사용된 23곳 중 첫 번째 곳. 그가 갖고 있는 세 번째 우려는 4절에서 발견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는 편집증(Paranomasia)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앞서 아모스의 환상 중 하나에서 편집증을 보았습니다. Kayitez와 Katez는 말로 장난을 칩니다.

편집증. 그는 4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는 Hoi Goy로 시작합니다. 안녕, 안녕.

호이(Hoi)는 유대인의 일부로서 깊은 감정과 표현을 나타내는 훌륭한 비속어 중 하나이며 때로는 이디시어 어휘라고도 합니다. 이 단어는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말.

아아, 비애, 또는 그와 비슷한 것. 고이(Goy)는 국가를 뜻한다. 그럼, 안녕, 고이. 아아, 민족이여.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어로 부기우기 구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호이 고이.

어이, 들어본 적 있지? 아, 고통을 뜻하는 이디시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 나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이 가발트.

아, 힘. Goyalt는 독일어를 통해 들어오는 이디시어 단어입니다. 응.

응, 네 댓글이 맘에 들어. 창세기 12장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한 민족이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는 가돌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국가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외국용 뿐만 아니라 고이(Goy)도 사용됩니다. 이제 현대 사회에서 Goy는 확실히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이 비유대인에게 하는 말은 무감각한 사람, 대개 반유대주의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경멸적이고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 이 특별한 경우에 그는 국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죄악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친구인 하타(hata)입니다. 이는 그들이 과녁을 놓쳤고, 길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를 들어 로마서에서 죄의 결과에 대해 말하는 그리스 신약의 하마르타노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그래서 인생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놓치는 것, 길에서 벗어나는 것,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는 것

등은 여기서 분사형을 사용하는데, 아마도 지속적인 종류의 행동이라는 개념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짊어진 사람들이요, 행악의 무리요, 부패한 자들아이다. 그는 여기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그가 부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는 뒤틀린, 구부러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의가 하나님의 정확함과 곧음과 올바름, 즉 그리스 세계에서 우리가 정통, 곧은 사고, 올바른 사고라고 부르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비뚤어지고 사악하고 뒤틀린 것입니다. 이 루트 에이번은 표준, 곧은 표준에서 구부러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모스에서 다림줄을 본 것과 마찬가지로 떨어져 나가서 여기에서 구부러져 스스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소개됩니다. 앞서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전체 예언을 썼다는 책의 통일성을 고수하는 사람들의 논증에 자주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이 독특한 표현은 이사야 1-39장(14번 나오는 곳)과 이사야 40장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되기 때문입니다. -66.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이사야 1-39장에서 12번, 이사야 40-66장에서 14번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우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 외에 이 단어가 5번만 사용된 것은 확실히 이사야의 핵심 용어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6장에서 그의 창조물과 별개인 인물을 보았습니다. 특히 이 죄 많은 피조물은 창조주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과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 다음 5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기소하면서 이스라엘을 몸의 모든 부분을 연타하고 구타당하는 수상 전사와 같다고 묘사합니다. 곳곳에 상처와 타박상이 있습니다. 굶아터진 상처.

그리고 걸으로는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부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와 내부. 머리와 심장. 당신은 그것을 병렬 방식으로 봅니다.

몸에 더 이상 건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영어로 그 관용구를 듣습니다. 글썄, 그것은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머리 꼭대기부터 발바닥까지. 그래서 그는 그 사람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와 부어오른 상처와 열린 상처만 치료하고 붓대로 감거나 기름으로 진정시키지 마십시오.

나는 이것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현대 이미지가 그리스도의 수난(Passion of the Christ)에서 로마 군인들의 대우를 경험하는 예수를 그린 멜 깁슨(Mel Gibson)의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시각적으로 상상할 수 있을 만큼 피투성이가 되고 멍들고 구타당하는 인간의 몸을 봅니다. 물론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은 이사야서의 인용문으로 시작되는 멜 깁슨 영화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4장에서 그의 영화의 영감이 된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을 언급하면, 그분은 확실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하나님께 맞으시고, 하나님께 맞으시며,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형벌을 받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53장에 나오는 고통받는 종의 이미지입니다. 자, 또 다른 고통받는 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벳야훼이다. 이 언어는 예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이 집단적으로는 고난을 받는 종입니다.

물론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고통받는 종의 이미지를 연구하여 구체적으로 한 사람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우 슬픈 상태에 있습니다.

그녀의 몸 전체에는 구타당하고, 부상당하고, 부어오르고, 허약하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6절 마지막 줄은 이스라엘이 그 상처를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름의 주요 용도 서너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렇군요, 의례용으로 사용되는군요.

오일 트리트먼트를 받으시게 됩니다. 사무엘은 쉘민의 뿔 곧 올리브기름을
가져갔습니다. 제가 쉘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이 감람들이 있는
갯세마네라는 말을 들을 때 히브리어로 기름을 뜻하는 쉘민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갯세마네 동산에는 크고 존경받는 오래된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외에 또 어떤 기름을 사용하였나요? 무엇을 위해? 좋아요, 그것이 바로
메노라가 성전에서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곱 가지 등대에 쓸 기름이
있어야 하였느니라.

셤민. 구약 시대에 기름을 사용하는 다른 곳이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나요?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기름으로 상처를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약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상처에 기름부음. 고대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밤새도록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어렸을 때 방에 야간등이 있었나요? 그렇죠, 보통 집에는
밤새도록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네 개의 주둥이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이사야 시대에
말입니다. 주둥이는 하나지만 램프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자리가 어느 정도 둥글고 가장자리가 어느 정도 꼬집어져 있고
심지가 들어 있는 접시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등잔에는 기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부인은 매일 기름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요리, 그렇죠.

좋아요. 그녀는 오늘날 우리가 버터라고 부르는 것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기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올리브 나무. 시체 준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특히 신체의 냄새 때문에 신체에 향료를 부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시체가 단지 상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죽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중해 세계의 올리브 산업을 이해하면 로마나 이탈리아는 성경 세계에서 가장 큰 올리브 생산국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이 감람나무라는 비유에 대해 쓸 때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그는 지중해 세계 최대의 올리브 생산국인 로마에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리스와 스페인도 올리브의 주요 생산국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는 그런 일이 있고 이집트에는 거의 없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7절. 너희 땅이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탔으며 너희 밭은 너희가 황폐케 하기 직전에 이방인에게 멸망함 같이 이방인에게 노략되었느니라.

이 유다 땅은 외국인들의 침략을 당하고 유린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사람들에게 시온의 딸이라는 흥미로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루살렘과 동의어이지만 시온의 딸이다.

성서 시대에는 도시를 일반적으로 여성형으로 언급했습니다. 도시라는 단어 자체가 귀라는 단어는 여성적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시온의 딸인 배트 시온이다.

아마도 다정함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ben이든 bat이든, of의 아들이나 딸이든 상관없이 카테고리나 그룹에 속하는 것과 관련하여 종종 사용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아마도 이 아름다운 도시에 속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방식으로 말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 성읍은 포도원의 피난처 같이, 가지와 잎사귀로 만든 임시 망대같이, 참외밭과 오이밭의 초막 같이, 포위된 성읍 같이 남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얼마의 생존자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이다.

다시, 남은 주제로 돌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신앙을 구두로 전하는 일은 이제 천년이 넘는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1900년경, 아마도 한두 세기 후쯤에 아브라함과 데이트한다면 학자들은 만장일치로 일치하지 않지만 우리는 8세기에 이사야와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부터 8세기까지가 1000년이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에 남은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그 도시들은 너무나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은 아직 그 도시들이 어디에 있는지 결정적으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도시들이 화산으로 인해 크게 전복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모른다.

그러나 남은 자들을 남겨 두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은 항상 양보다 질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남은 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나쁜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현대 기준으로 보면 3년 간의 사역 이후 120명입니다.

그러나 그 12명 중 11명은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가르치신 것을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만큼 깊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남은 생각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서 이 구절이 당신과 나를 포함하는 남은 주제에서 어떻게 선택되었는지는 흥미롭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단지 유대인 남은 자만이 아니라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의 관점에서 이것의 의미를 확장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9.29 이사야가 전에 말한 것과 같으니 만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이다.

이 의로운 남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라. 그래서 남은 주제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무정한 예배의 허무함이 무의미하다는 점입니다. 5절부터 보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등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외적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숫양의 번제물, 즉 살진 동물의 기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황소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미가서 6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의식을 거부하고 의식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는 단지 희생 시스템이 강화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네가 내 앞에 올 때에 내 뜰을 짓밟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아마도 사람들이 와서 성스러운 경내를 채우겠지만 그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다. 쓸데없는 제물만 가져오니까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예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의미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이사야는 이제 방향을 바꾸는데,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지배적인 주제는 아닐지라도 거대한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종교를 따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답하시며 주로 마음의 진실함, 용서의 결핍, 내면의 것들, 사랑의 결핍, 형제애의 결핍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규칙이나 규정, 의식이나 예식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월삭과 안식일과 성회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이런 것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나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 때문에 지쳤습니다. 너희가 내게 손을 펴고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가리리라.

네 손에 피가 묻어 있으니 나는 너를 호의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서 기독교-유대교 관계의 역사에 관한 책을 쓴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책 Hands Are Full of Blood의 제목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유대 민족에게 가한 폭력은 또 다른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의 손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즉, 그들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그 피 묻은 손으로 뭔가를 하라는 부름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수업에서 우리가 받을 부르심은 그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게 다일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27, 이사야 선택 구절, 2부입니다.